

지구의 변화와 인간지성의 역할

| 아난다무르티 | 찻다다 번역 |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기후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지구변화를 예측하게 합니다. 그동안 지구에는 생명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두 번의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지성을 갖춘 인간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저자는 이제 지구생명체에게 중요한 제3의 빙하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이 이전과 다른 점에 주목합니다. 즉 지금은 지성적인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인간의 지성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물어 봅니다(편집자 주).



지구의 양극[북극과 남극]의 위치가 변하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지구의 양극은 그 위치가 변한다.”이다. 인간의 [가슴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가치관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나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우주적인 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지니는 고유한 가치체계 또는 인간 존재의 원칙적인 면면들은 변화, 정신적 차원의 변형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질적인 영역, 물질적인 현상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지구 행성의 역사에서는 과거에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행성, 별, 위성, 성운들의 역사에서도 있었다.

물질계에서는 변화 그것이 바로 존재의 질서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집단적인 의식의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는 우주적인 질서 또는 우주적 의지[하나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물질적인 차원의 변화만큼 현저하지는 않다.

지구의 극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양극은 각각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 과거에는 그러한 극의 이동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이 지구촌은 물론 수많은 다른 행성의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극의 이동, 즉 극의 변화의 결과로서, 지구 행성의 표면, 즉 지표면이 지금처럼 단단해지기 이전에는 많은 위성들이 지구 속으로 들어오거나 지구 밖으로 분리되어 나갔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지구의 표면에 토양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태평양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고대의 천문학과 점성학에 의하면 화성 역시 이 지구로부터 분리되어 나갔으나, 지구의 위성으로서 지구 주위를 돌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화성이 쿠자(Kuja)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토성이 왕이고, 화성은 재상이다(Shani raja Kuja mantrii).”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Ku”는 지구라는 말이고, “Kuja”는 지구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다. 이처럼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과거에 이미 일어났으며,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다.

자, 양극은 그들의 위치가 이동한다. 과거에 여러 차례 걸친 이와 같은 축의 이동의 결과 지구의 자전 시간[하루의 길이]이 변경됐고,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 기간, 즉 한 해의 길이가 바뀌었었다. 하루의 밤과 낮의 합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었으며, 공전 기간이 365일 또는 366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극의 위치의 변화로 인하여 계절의 질서도 바뀌었으며, 지구와 화성과의 관계도 자주 변하였다. 또한 지구의 역(曆; calendar)의 질서, 즉 달력의 체계도 과거에 변경되어야만 했다.

양극의 위치가 이동하게 되면 지구의 자전 기간이 분명히 줄어들거나 또는 늘어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지구의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기간도 줄거나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종종 계절의 질서가 달(Month)과 잘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극의 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의 결과로 달과 계절이 잘 맞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환경 및 생태계의 질서도 또한 교란될 것이다.

이러한 교란으로 인하여, 식물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모든 살아 있는 창조물의 신체적 및 생물학적인 구조의 변화가 당연히 초래될 것이다. 지질학에서의 제3기(Tertiary Age)의 식물들은 백악기

(Cretaceous Age; 중생대 최후의 지질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백악기의 동식물들은 그 후에 오는 시기, 플라이오세(Pliocene), 마이오세(Miocene), 올리고세(Oligocene; 점신세), 중생대(Mesozoic), 그리고 신생대(Cenozoic)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왜냐면 이들 생명체들의 생존은 바로 생태적인 균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극의 위치이동의 결과로서, 어떤 이들은 지구의 동반구에서는 북극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서반구에서는 남극이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양극 간의 거리가 지금의 그것처럼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이 극의 위치, 환경계의 질서, 그리고 생태계의 구조상의 변동에 따라 초래될 결과에 대해서 대비해야만 한다.

또한 이 극의 위치 변화의 결과로 지구의 자기 구조(magnetic structure)가 변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태양계의 다른 행성 및 위성들도 매우 중요한 변화를 겪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질서의 교란이 일어나면, 지구 행성은 물론 전체 태양계의 전자기장(electromagnetic)의 파동에 큰 변형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형의 전자기장의 파동의 변화는 인간의 사고 파동(thought waves)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의 진보는 전자기장의 파동, 전자기장의 작용에 관한 지식의 진보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인간성(humanities)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 모두에 있어서 우리들의 진보는 [극의 이동으로] 큰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극의 변화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그런 변화에 대비해야만 하며, 그 변화는 아마도 매우 가

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이다.

그대들도 알다시피 인간 존재란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구조를 지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파동들의 집합체이다. 그러므로 물질적 파동이 변하면, 즉 기후적인 여건이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면, 신경세포와 신경섬유의 표출작용과 이입작용이 변화를 겪게 되고 교란될 것이다. 그 변화란 좋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변화가 있게 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육체적 차원과 아울러 육체-정신 차원에서의 그런 변화는 영성의 영역에 변화를 줄 것이 분명하다. 우리들은 그러한 변화, 즉 인간 존재와 함께 모든 생명체들에게서 일어날 변화가, 물질적인 차원으로부터 순수의식(consciousness; 열)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 외향적으로 치닫는 흐름에서 내적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인간들의 사고 파동이 현재보다 더욱 영적인 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그와 같은 진화된 상태에서의 인간들은 현재보다 더욱 영성적인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우주적 존재, 지고의 인지 주체[소위 한얼님, 진여자성, 하나님]는 물질적, 초물질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항상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 개체 존재의 경우에 육체적인 변화의 결과로서 신경체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의 세포들과 신경 섬유들은 지금과는 다른 식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의 파동(thought waves; 넘파), 즉 지고의 인지 주체의 넘파는 그것이 개체 인간의 구조물[몸과 마음]을 통과하면서 일종의 변환을 필히 겪게 된다.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면 인간의 내면화라는 차원에서의 진보가 현재보다 가속화 될 것이다.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에서의 극의 위치가 이동하게 되면, 인간들에

계는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고의 존재[한얼님]의 염과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인간들은 보다 더 명상적이 될 것이며 지고의 순수의식, 우주적 인지 능력[한얼님]을—보다 과학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우주상의 그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 모든 것은 움직임이다. 그러기에 극들도 움직임이며, 사실상 극들은 각각의 위치를 옮기는 기능을 이미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결과로서, 특히 그런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되면, 또 하나의 빙하기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게 된다. 빙하기의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사이에는 긴 세월의 간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지성에 기대를 하고 있다. 재난이 오는 경우에 인간의 지성은 그러한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을 적절한 환경 조건과 보다 나은 생태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킬 것이다. 인간사회가 깨어나도록 하자. 그리고 인간사회의 발전이 점점 더 영적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되도록 하자!!(1986. 5. 31 강연중에서)

빙하기가 다가오고 있다

역사란 리듬을 가지고, 확장과 수축의 흐름을 보이면서 나아간다. 역사는 지속적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때 한번 높은 도약을 한다. 그리고 다시 그러저럭 나아가다가 또 한 차의 높은 점프를 하는, 이런 양상을 반복한다. [한번씩] 갑자기 높은 점프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바로 그러한 높은 도약의 문턱에 와 있다. 문턱에 와있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막 새

그 누구도 이 우주상의 그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 사실상 극들은 각각의 위치를 옮기는 기능을 이미
시작하였다. 특히 그런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되면,
또 하나의 빙하기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게 된다.

시대의 문턱을 넘어섰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새로운 시대-의 문
턱에 있으며,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더 이상 문턱에 있지 않다. 우리들은 거대한 변화들
에 대비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균형을 상실하게 될 것이
다.

움직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일한 속도가 유지될 수는 없다.
언제나 가속적-일정한 가속 또는 가속화된 가속-이거나, 또는 퇴보
적-일정한 퇴보 또는 퇴보적 퇴보-이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양상의
가속 또는 퇴보의 움직임과 함께 하나의 높은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그리고 이 같은 도약의 전과 후에는 생물학적인 변화, 역사적인 변
화, 농업상의 변화, 그리고 인간 심리의 변화가 있게 된다.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생명체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의
중요한 빙하기가 있었다. 이 두 빙하기의 첫 번째 빙하기에는 그 어떤
진화된 동물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진화되지 못한 동물들만
이 있었다. 그 때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그 첫 번째 빙하기 이
후에 중요한 진화가 있었고 많은 시대들이 뒤따랐으며, 짐승들이 거대
해졌다. 그리고 두 번째의 중요한 빙하기 이후에는 거대한 동물들이
사라졌고, 작은 동물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팔레오세(Paleogene; 신
생대의 제3기에서 가장 오래된 지질계),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오세
등이 오게 되었다.

지구상에는 또 하나의 빙하기가 오고 있다. 그것은 지구의 구조적

측면에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빙하기가 오기 이전에너지구상의 인간계, 동물계, 나아가서 모든 생명계와 무생명계에 있어서 지성적인 변화와 아울러 대대적인 생물학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여러분은 계절의 질서라는 측면, 심리적인 측면, 사회-경제-정치적인 면, 문화적인 면, 그리고 생물학적인 구조상에서의 변화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이미 변화를 겪고 있다. 지구의 양극도 이미 이동을 시작하였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오고 있는 빙하기 이후에는, 열대지역에 변화가 있게 될 것이며, 대규모의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서, 하나의 특별한 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여러분은 계절의 질서가 변화되고 동시에 교란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가? 북극이 열대지역으로 가깝게 움직여가고 있으며, 남극은 열대지역의 반대편에서 서반구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만약 동반구에서 북극이 북에서 남으로 옮기고, 서반구에서는 남극이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면, 지구의 물이라는 면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는가? 극지방의 얼음이 녹게 될 것이며, 대양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그것은 지구 전체에 걸쳐서 조파[조수의 간만으로 일어나는 큰 파도 내지 해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평양은 더 차가워질 것이며 열게 될 것이다. 기존의 많은 항구들이 결빙으로 폐쇄될 것이다. 계절의 양상도 변할 것이다. 강우량과 기온의 변화는 식물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사유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양력에 기준을 둔 한 해는 이미 365일에서 366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월력의 한 해는 여전히 그대로 354일과 355일로 남아 있다. 지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앞으로 오게 될 그러한 사건, 그러한 거대한 변화에 대비해야만 한다. 캘커타 지역은 그전에는 폭풍이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왔었다. 그러나 지금 시각은 겨우 오후 4시 15분 인데 폭풍이 저렇게 휩쓸고 있다. 계절의 질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한때, 핏박 받던 세계의 민중들은 공산주의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만병통치약이라는 느낌을 가졌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인간성, 합리성,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 어긋나게 나아갔고, 인류 문명의 근본 바탕 그 자체를 혼란시키게 만듦으로써, 민중들은 이제는[1990년] 그들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의 실각으로 인하여 하나의 진공상태가 발생하였다. 이 진공상태는 여러분의 지성과 이념으로서, 젊은 여성과 남성들 그리고 프라우트(PROUT, 사카르가 제시한 새로운 대안적 사회/경제/정치 체제)에 의해서 채워져야만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가까운 장래에 성취될 것이다.


왜 지금 마르크시즘이 변화를 겪고 있는가?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 변화는 육체적/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일어난다. 온갖 변화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신적인 영역과 모든 인간의 표현 영역에서 오고 있다. 그것들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도착하였다.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을 이미 넘어섰다.

고생대(Paleozoic)기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때는 지구가 가스 상태로 있어서 식물도, 사카르 지역도, 로얄시마 지역도, 안드라 지역[이상은 인도의 지역]도 없었다. 그 후에 안드라의 일부와 조그만 동물들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안 지역이나 비사카파트남 지역은 없었으며, 메닥 지역은 있었다. 그런 후에 많은 비가 오게 됐고, 구릉은 눈으로 덮였으며, 강들은 얼음으로 채워졌다. 고다바리, 크리슈나, 카

베리 강들은 얼음으로 쌓였다. 강들은 연중 내내 물을 공급하였지만, 아직도 인간은 볼 수 없었다. 이런 광경이 현재의 안드라 프라데쉬[인도의 중부에 있는 주]의 고고학상의 모습이다. 많은 거대한 몸집의 동물들인 공룡, 뇌룡[쥐라기의 공룡의 일종] 등등이 출현하였다. 그런 다음에 올리고세, 미오세가 왔다. 그 후, 프리오세의 후반부에 인간의 선조들이 출현하였으며, 현생 인류는 대략 일백만 년 전에 최초로 생겼다. 그리고 대략 일백만 년 후에는 이 지구상에 인간은 없어질 것이며, 미래 세대들은 현 세대의 인간의 화석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각종의 “변이(mutation and transmutation)”를 통해서 바뀌어간다. 이러한 “변이”들은 육체적인 면은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도 발생하며, 나아가서 깨어남을 기다리고 있는 무생명체의 잠자고 있는 의식의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생명체와 무생명체 모두가 [자기] 표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의 빙하기 이후에 정신적인 영역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거구의 동물들이 출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의 빙하기 이후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으며, 거구의 동물들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에 작은 몸집의 동물들이 출현하였다. 매머드가 코끼리가 된 것이다. 크리슈나강, 카베리강, 퉁가바드라강들은 지금은 인도반도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그 강들은 약 3억 년 전에는 곤드와나(Gondwana)의 한 부분이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각종 변이의 예들이다.

지금 이 시대에 공산주의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앞으로 차원 높은 사상과 높은 정신적인 성취를 가능케 하는 여지가 생겼다. 이것은 자연스런 변화이며 결코 재난이 아니다. 다른 철학들도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수년전에 내가 베를린 장벽의 곁을 걸으면서 공산주의는 사라져야만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꿈으로 여겨졌다. 그

러나 이제 그 꿈은 눈앞의 엄연한 현실로 바뀌었다. 이것은 자연스런 변화이며 결코 재난이 아니다. 다가오고 있는 변화들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런 변화들은 당연한 것들이다. 그런 변화들은 전에 없었던 재난이나 재앙이 아니며, 커다란 역경도 아니다. (끝) 

- 이 글은 저자의 1990. 3. 24 강연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아난다무르티(P. R. Sarkar)** | 1921년 인디아에서 태어난 P. R. 사카르(Sarkar)는 18세부터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1955년부터는 “깨달음과 사회봉사”를 목표로 하는 아난다 마르가(Ananda Marga: 지복의 길)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의 이상을 펼쳐나갔다. 그의 가르침은 개인의 깨달음을 위한 매우 과학적인 몸과 마음의 수련법과 아울러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간 삶의 모든 면을 다루는 실천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결합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프라우트(PROUT; 진보적 활용론)라는 대안제도를 주창함에 따라서, 인디아는 물론 자본주의 및 공산주의 국가들의 집권세력들로부터 다양한 핍박을 받았으며, 7년여의 감옥생활과 독살의 위협을 받았다. 그는 소득과 부의 극단적인 편중으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세계경제는 대공황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된다고 하였다. 한편, 자연계에서는 지구축의 이동과 그에 따른 기후와 환경의 급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간을 포함한 지구촌 모든 생명체의 진화가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갈등과 자연계의 급변에 의한 인간 의식의 진화로 인하여, 지구촌에는 프라우트라는 새로운 매우 이상적인 대안체제가 들어서게 된다고 예견하였다. 그는 1990년에 돌아갔다.

역자 | **쫏(아난다) 다다** | 1948년 전북정읍 출생으로 서강대와 미국의 위치타주립대 및 매릴랜드대(경제학 박사)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연구를 하였다. 1991년부터 아난다 마르가의 수행을 시작한 후, 그 사상과 수련법에 심취되어 2001년에는 아난다 마르가의 출가수행자가 되었다. 2002년부터 동남아에서 그리고 2005년부터는 동북아에서 “깨달음과 이상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0년 6월에는 경북 예천에서 프라우트적인 수행공동체를 시작하였다.